KAIST · 글로벌테크아트허브추진위원회 · (사)글로벌테크아트협회

배 경 설 명 자 료

G-ARTIENCE 2026
HUMANITY NEXT

‘G아티언스 2026’ 보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4년 8월 출범 이후 G아티언스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여 배경설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월례 커넥팅데이와 두 차례의 국제 커넥팅위크, 국회·지자체 포럼, 대선 공약 반영 등 정치권의 반응, 《아티언스 대한민국》 출판, 아티언스관 · 아트큐브 등 각종 제안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G아티언스, 대전의 ‘복덕방’에서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로

- 2024년 8월 출범… 커넥팅데이 20여 차례, 국제 커넥팅위크 두 차례
- 국회·서구·유성구 포럼, 대선 공약 반영 등 정치권의 호응
- 《아티언스 대한민국》 출간, 아티언스관·아트큐브 등 제안 이어져

2024년 8월 대전 윕스퀘어에 과학자와 예술가 80여 명이 모였다. 서로를 이어 줄 ‘복덕방’을 만들자는 작은 제안은 2년 남짓 만에 20여 차례의 월례 모임과 두 차례의 국제 행사, 국회 포럼과 대선 공약, 40명 규모의 글로벌테크아트허브추진위원회로 자라났다. 11월 30일 ‘G아티언스 2026’을 앞두고 그 발자취를 정리한다.

탄생: 과학자와 예술가를 잇는 ‘복덕방’

G아티언스는 2024년 8월 22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 윕스퀘어 5층 에디슨홀에서 첫 모임을 열고 출범했다. 대전의 과학자와 발명가, 예술가, 기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고, ‘과학기술로 꽃피우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재능과 지식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 확산을 내걸었다. 이름은 위대함(Great)과 예술(Art), 과학(Science)을 합친 말로, 과학기술계 100명, 문화예술계 100명, 각계 전문가·기업인 100명 등 회원 300명을 목표로 삼았다.

출범의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수도’ 대전의 역설이 있었다. 연구단지와 산업, 시민 사이의 협력과 융합이 더디고, 특히 예술가들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서 소외돼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사무국을 꾸린 김수우 윕스퀘어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간 융합 모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윕스퀘어의 200석 규모 다목적홀 등 7개 공간을 회원에게 무료로 열었다. 영상자서전 제작과 공유 오피스도 지원했다.

첫 모임에서 김명석 KAIST 명예교수는 ‘호모 아티언스’를 주제로 강연하며 예술가와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자가 함께 만나는 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학자와 예술가가 서로를 발견하고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 제안은 G아티언스가 걸어온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 됐다.

매달 이어진 '커넥팅데이'

G아티언스는 출범 이후 매달 윕스퀘어에서 '커넥팅데이'를 열어 왔다. 2024년 9월 제2회 모임에서는 갑골문 소개와 트로트 공연이 어우러졌고, 강연과 공연, 스타트업 발표, 네트워킹이 한자리에서 이어지는 형식이 자리를 잡았다. 2026년 7월 제18회 모임은 하모니카 독주와 스타트업 IR, 강연을 묶은 '100분 네트워킹 라이브'로 열렸고, 10월 제21회 모임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커넥팅데이는 국제 행사의 산실이기도 했다. 1년 넘게 매달 이어진 논의와 협업이 커넥팅위크의 강연과 공연, 청년 프로그램, 산업 토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월례 모임에서 만난 작곡가와 가수, 연구자가 함께 꾸민 테크아트 협업 무대도 이렇게 탄생했다.

G아티언스 2024 커넥팅위크: K-테크아트의 첫 무대

월례 모임은 출범 석 달여 만에 국제 행사로 넓어졌다. 'G아티언스 2024 커넥팅위크'는 2024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와 윕스퀘어에서 'K-테크아트'를 주제로 열렸다. KAIST와 백남준아트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으며, 김명석 조직위원장과 원광연 KAIST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차인홍 미국 라이트주립대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가 무대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X자형 중앙 무대와 75m 길이의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돼 AI 모션캡처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댄스, 자동연주 등 40여 개 공연·연구팀의 융합 작품이 소개됐다. 주최 측 집계로 13개국 1,808명이 참가해 '대한민국 첫 글로벌 테크아트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행사 뒤 KAIST와 ETRI 등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대전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G아티언스 2025 커넥팅위크: Power On Humanity

2025년 8월에는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대 원장을 지낸 원광연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정화 대전보건대 총장,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했고, 프로그램은 학술 20%, 산업 50%, 예술 30%의 '20·50·30 모델'로 짜였다.

'G아티언스 2025 커넥팅위크'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Power On Humanity: Global TechArt Now'를 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와 윕스퀘어에서 열렸다. KAIST와 한국예술종합학교, G아티언스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대전시·ETRI가 후원했다. 로봇 창작서예 경연대회 '로보캘리', 웨어러블 로봇 'M20'의 로봇 퍼포먼스, 테크아트 스타트업 오디션, 테크아트 레이브 '이그나이트 2025' 등이 펼쳐졌다.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황정아·박성준 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조승래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미래의 대화'에는 원광연 조직위원장,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독일 ZKM의 티나 로렌츠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24개국 2,121명(연인원 5,159명)이 참가했고, 독일 ZKM,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의 협력도 이뤄졌다.

국회로 간 테크아트

2025년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조승래·강유정·황정아 의원 공동 주최로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대전 –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논하다' 정책 포럼이 열렸다. 김명석 KAIST 명예교수가 '테크아트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기돈 충남대 교수가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대전의 가능성'을 발제했고, 장종태·박성준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안 교수는 글로벌 테크아트 콤플렉스 조성, 융합 플랫폼 구축, 전략산업화의 3단계 로드맵을, 이인섭 K드림파트너스 대표는 민관 펀드 조성을, 양중식 대전ICT산업협회장은 테크아트 기술의 실증·인증 체계를 제시했다. 김수우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새 문화예술지구에 '아티언스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계적인 테크아트 거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과학자는 예술가가, 예술가는 과학자가 되는 도시로 대전을 키우자며 G아티언스 플랫폼 활용과 전용 공연장 건립을 강조했다.

포럼은 정책으로 이어졌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전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KAIST 문화기술대학원이 '대전 Art & Tech 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맡았다. 2026년 7월 14일 KAIST에서 열린 중간발표회에는 과기정통부와 대전시, 유성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서구·유성구로 번진 테크아트 포럼

기초자치단체도 움직였다. 대전 서구는 2025년 8월 서구청에서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포럼'을, 9월 22일 웁스퀘어에서 '혁신생태계 테크아트 포럼'을 잇달아 열었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누리호 개발 총책임자인 고정환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수우 대표는 생활밀착형 초소형 AI 공연장 '디아티언스(The Artience)'를 서구에 2~3곳 시범 설치해 세계로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서구와 유성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로 함께 지정돼 있다.

유성구는 2025년 가을 '혁신 릴레이 포럼'의 문화혁신 분야에서 테크아트를 다뤘다. 우운택 KAIST 메타버스대학원장, 김수우 G아티언스 사무총장, 이성희 그린갤러리 대표 등이 테크아트 도시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과 온천문화를 활용한 초소형 테크아트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유성구의회가 2,200만 원 규모의 '테크아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의결했다.

유성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를 꾸려 유성온천문화체험관 미디어경관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실행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온천로 '테크아트 로드' 조성을 민선 9기 공약으로 내걸었고, 청소년 테크아트 정책학교도 운영했다.

대선 공약과 정치권의 반응

테크아트는 2025년 대선을 거치며 정책 의제로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대전'이 포함됐다고 보도됐고, 이후 지역 언론은 테크아트를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소개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 일간지 기고에서 K콘텐츠를 잇는 차세대 산업으로 테크아트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2025 커넥팅위크 무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심은 국회에만 머물지 않았다. 2025 커넥팅위크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함께했다. 원광연 조직위원장은 행사가 지속되려면 대전시 같은 공적 주체가 적극 참여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티언스 대한민국》 출간

2026년 6월 28일 G아티언스의 구상을 담은 책 《아티언스 대한민국》이 나왔다. 김수우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장이 이광형 전 KAIST 총장 등과 함께 네 명이 공동 집필했다. 책은 빠르게 따라가는 데 익숙했던 한국이 AI 시대에는 처음 길을 내는 나라가 돼야 하며, 그 길이 예술(Art)과 과학(Science)을 잇는 '아티언스'라고 말한다.

책은 K-컬처 다음의 길로, AI와 XR, 로봇, 공간음향 같은 기술을 공연과 전시, 교육, 관광에 잇는 'K-테크아트'를 제시한다. 김 회장은 7월 27일 제18회 커넥팅데이에서 '아티언스 대한민국: AI 시대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책의 구상을 소개했다.

다양한 제안: 테크아트 콤플렉스에서 아티언스관, 아트큐브까지

G아티언스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도시 인프라에 관한 제안을 이어 왔다. 2025년 초 조직위원회는 360도 LED 월과 XR 무대, AI·로봇 기반 창작 연구소, 관객 참여형 공간을 갖춘 세계 최초의 '테크아트 콤플렉스' 건립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국회 포럼의 '아티언스관' 제안으로 이어졌고, 세계의 새 작품이 처음 무대에 오르는 테크아트 콤플렉스로 다듬어졌다.

생활 속 테크아트를 위한 제안도 잇따랐다. 동네에서 만나는 작은 공연장 '아트큐브', 초소형 AI 공연장 '디아티언스', 사라지는 몸짓을 기록하는 '세계공연예술유산센터', 시민의 아이디어와 연구소를 잇는 '아티언스 퓨처랩'이 대표적이다. 각자 가진 것의 2%만 나눠도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G300' 네트워크는 세계 도시를 잇는 'G300 글로벌 테크아트 도시연합' 구상으로 넓어졌고, 한밭수목원과 대전예술의전당을 잇는 '대전 아티언스 파크' 구상도 나왔다.

글로벌테크아트허브추진위원회 출범과 G아티언스 2026

2026년 9월 28일 웁스퀘어에서 과학자·예술가·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테크아트허브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김명석 KAIST 명예교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조승래 의원은 정책협력으로 참여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추진위원회는 가칭 '아티언스관'을 핵심 거점으로 제안하고 G300 도시연합, 커넥팅위크, 퓨처랩, AI 테크아트 아카데미 등을 연계 사업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11월 30일, 세 번째 국제 행사 'G아티언스 2026'이 KAIST 본원과 웁스퀘어에서 'HUMANITY NEXT'를 주제로 열린다. 사흘 동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던 행사를 KAIST 캠퍼스의 하루로 압축하고 KAIST CTSCAPE를 함께 열어, 연구 현장의 깊이를 택했다.

"기술에 감성을. 예술에 가능성을. 인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자와 무용가, 지역 정치인이 함께 낭독한 '글로벌 테크아트 공동선언'의 한 구절이다. 2년 전 '복덕방' 제안으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세계의 과학자와 예술가가 신작을 들고 찾아오는 도시 대전을 그리고 있다.

■ G아티언스 개요

명 칭	G아티언스 (G-Artience = Great + Art + Science)
출 범	2024년 8월 22일, 대전 윕스퀘어 (제1회 커넥팅데이)
정례모임	월례 '커넥팅데이' 20여 회 (2026년 10월 제21회)
국제행사	커넥팅위크 2024(13개국)·2025(24개국), G아티언스 2026(11. 30.)
사 무 국	맥앤윕·윕스퀘어 (김수우 대표)
추진조직	글로벌테크아트허브추진위원회 (2026. 9. 28. 출범, 40명)
핵심제안	아티언스관(테크아트 콤플렉스), 아트큐브, G300, 아티언스 퓨처랩

■ G아티언스 주요 연혁

구분	시기 · 장소	내용	의미
출범	2024. 8. 윕스퀘어	**제1회 커넥팅데이 (80여 명)**	'호모 아티언스'·'복덕방' 제안 / 이후 월례 모임 20여 회
국회	2025. 4. 국회의원회관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대전 정책 포럼**	조승래·강유정·황정아 의원 공동 주최, 아티언스관 제안
지자체	2025. 8.~11. 서구 · 유성구	**서구 테크아트 포럼 2회, 유성구 문화혁신 포럼**	디아티언스 제안, 유성구 테크아트 도시 기본계획
2026	2026. 6.~9. 대전	**《아티언스 대한민국》 출간, 추진위원회 출범**	이광형·염홍철 공동위원장, 아티언스관 제안

■ G아티언스 커넥팅위크 발자취

연도	기간 · 장소	주제	성과
2024	12. 1.~3. 대전컨벤션센터	**글로벌 테크아트 혁명 :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13개국 1808명 참가, 대한민국 첫 글로벌 테크아트 플랫폼
2025	11. 16.~18. 대전컨벤션센터	**Power On Humanity : Global TechArt Now**	24개국 2121명(연인원 5159명), 독일 ZKM·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협력
2026	11. 30. KAIST·윕스퀘어	**HUMANITY NEXT**	캠퍼스 하루 집중형으로 전환, KAIST CTSCAPE 동시 개최

- 끝 -